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교계 수련관 상담 인기

청소년 중 절반이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지난 1월 전국 14~19세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응답자의 51.6%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소년의 29.1%는 '최근 한 달 동안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22%의 학생들이 심한 두려움과 신경과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64%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20.7%), '성적에 대한 부담'(20.5%), '외모'(17.3%), '부모님과 갈등'(1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삶의 회의에 대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에 불과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재단측에서는 지난 3월 22일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젝트, 고(Go)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함토크콘서트는 정신과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건강멘토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정신



상담교육을 받은 또래상담가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상담가로부터 조언받는다.

목동·역삼 수련관 상담프로그램 개설
목동... 전문 심리상담가 4명 상주
역삼... 유사 경험 친구들이 상담

건강의학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정신건강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 진행 불교계 수련관에서도 고민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서울시내 26개 청소년수련관 가운데 불교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은 3곳. 목동·역삼·구로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담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집을 털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상담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일부 복지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심리사가 상담을 실시한다.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원)의 경우 4명의 심리사들이 상주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조언을 구하는 분야는 진로, 가족 갈등 문제가 대다수다. 1달에 30명 가량이 상담을 신청해온다. 개인상담 외에도 직접 학교로 찾아가 심리검사,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성폭력방지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고민 공감... 또래상담가 양성도

상담의 기본 원칙은 공감. 또래 친구가 상담가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가치관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신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또래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의 경우 또래상담가 양성과정 10회기로 짜여져있다. 상담 기본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상담가들에게 조언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심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래상담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11명의 학생 중에는 학교폭력을 실제 경험하고 이를 나누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김태연 상담사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분야 많은데도 오히려 멘토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과 과외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거부감 등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인식개선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쇼트트랙 세계 신기록 보유 노진규 선수

생명나눔 4월 환자 선정



지난해 ISU 대회 출전 당시(사진 왼쪽)와 환자복을 입은 모습의 노진규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번)는 4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노진규(21)씨를 선정했다. 1500m 쇼트트랙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그는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도 있었다. 올림픽 출전을 목전에 두고 알게 된 골육종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2011년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종합우승 등을 거머쥔 그는 촉망받던 스케이팅 선수였다.

"처음엔 자란 후를 제거해야 하는 시술로 알았어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케이팅을 탔던 그는 일용직을 하는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훈련에 몰두해왔다. 지독하게 노력한 결과, 고등학교 때는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1천만원. 향후 항암약물 및 재활비용으로 2천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빠른 가정형편상 치료비 마련은 그에게 요원한 일이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심한 좌절을 느꼈다는 노진규씨. 어릴때부터 함께 스케이팅을 배웠던 누나는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 그에게 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누나를 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겠다는 투지를 가다듬는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의지나눔 시즌 7, 더 알차졌다

참여범위 학부모로 확대, 인문학 강좌도 개설

재능나눔의 시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7기가 시작됐다.



3월 29일 진행된 의지나눔 7기 입학식.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3월 29일 동국대에서 소외계층 중학생 100명과 동국대학교 참사랑봉사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지나눔 입학식을 개최했다.

7회를 맞으면서 의지나눔에도 변화가 생겼다. 청소년들만 참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직업군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것이다. 문화해설자와 역사학 교수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도 개설됐다. 학생들은 전

통문화재 탐방 등을 통해 역사의식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예정이다. 학생들은 1년간 외교관, 로보공학연구원, PD, 아쿠아리스트, 호텔리어, 바리스타 등과 만나며 직업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동행, 필리핀 태풍 피해 2차 지원

아라우 부대-파워초교와 합의각서 체결



아름다운동행은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2차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서를 체결했다. 2차 지원은 태풍 피해 구호 성금 5억 원 중 1차 구호 이후 나머지 2억 6천여 만원이 전부 지원되며 타클로반주의 지역 초등학교 9곳의 시설 복구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파워초등학교 복구가 시작되며 나머지 8곳의 학교 재건작업은 9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로레타 글라리아 파워초등학교장은 "태풍발생 이후 지난 4개월간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태풍으로 부모님과 집을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임시 학교로 전학가는 학생들도 많다"며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복구돼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원 아라우부대장은 "합의각서 체결은 아름다운동행과 아라우부대, 학교의 역할분담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핀 공병과 아라우부대가 협력해 학교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이 지난해 11월 초 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2차 지원을 펼친다. 이번 지원은 1차 긴급구호 이후 현지 상황과 지역 조사를 통해 5개월 만에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육시설 복구 사업에 전면 지원한다.

동행은 3월 28일 필리핀 팰로시에 위치한 파워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 합동지원단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파워초등학교(교장 로레타 글라리아)와 태풍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9곳을 복구하기로 합의

로터스월드, 금선사와 라오스 도서관 건립

3월 26일 라오스 단체에 2천만원 기금 및 도서 전달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린 전달식. 가운데가 법안 스님이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26일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안)와 함께 라오스 불교 지역개발단체 BDP(Buddhism for Development Project)에 총 2천만원 상당의 도서관 건립비와 도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서 지원된 도서관 건립기금은 캄무와 주 봉쌍마을 도서관 건립에 사용되며, 1,800여권의 기증 도서는 라오스 전국 18 여개 사찰에 지원될 예정이다.

봉쌍마을 도서관의 경우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건립 기금을 모았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자재를 직접 구입해 올 상반기 중으로 도서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증도서를 사원에 기증하는 이유는 라오스 사원이 종교기관을 뛰어넘어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로터스월드 측은 "라오스에서의 도서 지원은 빈곤가정이나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일반학생까지 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원에 도서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마을 주민 모두가 쉽게 책을 읽으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금선사 신도들은 맹아학교 아동들의 음악수업에 필요한 악기구입비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과 신도들, 라오스 현지 단체 BDP 대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이주민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수강생 모집

한국다문화센터, 4월 25일까지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웁)는 관광산업 발전 및 이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센터측은 이를 통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이주민을 관광통역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관광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포함한다. 관광지를 방문, 모

의시험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주 6시간 수업) 진행된다. 해당연 어원의 이민자 및 유학생(취업가능자)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실습비 포함 30만원이다. 신청 서류 접수는 4월 25일까지다. 수강생들에게는 관광통역안내사 교재(총 4권)와 기념품(예코백)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다문화센터 홈페이지나 02-737-0467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동화사 국비횡령 보도는 허위로 밝혀졌고, 괴문서 내용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권력 동원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일부 언론의 국비횡령 의혹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 허위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국비 횡령' 의혹을 보도했던 <헤럴드경제> 신문은 3월 27일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1일 "동화사가 정에 조성한 국제관광선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고 허위보도 하였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국제관광선원의 공사비 단가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개정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2010년 건설품셈, EMS 통합내역 관리 시스템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헤럴드경제> 허위보도로 비롯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뜨리고, 주지스님을 음해하려는 배후세력의 치밀한 작업에 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주지스님을 음해하는 괴문서를 유포한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줍니다.

지난 연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국 선원과 언론사 등에 주지스님을 음해하는

괴문서가 우송됐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의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동화사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범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하고 있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범인이 주지스님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전국에 유인물을 뿌려 주지스님을 음해했겠습니까? 이는 배후모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악의적 음해를 사주한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주성 수호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팔공총림의 설치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 교계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역대 주지선거의 폐해를 불식시킴으로써 교구의 원용화합을 실현하려는 염원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지지명 과정에서 교구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원용화합은 외면한 채 거리 경찰 3개중대, 사복경찰과 사설 경호원까지 동원된 가운데 공권력의 비호 아래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림의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공권력 동원의 주역이 중정에경실이라는 점이 더욱 총림 대중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북면괴화사건'으로 명명되는 공권력을 동원해 자주성을 훼손한 행위로 인해 방장스님의 권위와 명예는 크게 손상을 입었고, 훼손의 시대에도 간직해 왔던 출가자의 자존은 침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팔공총림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주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팔공총림 설립 의도인 원용화합과는 달리 교구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그 폐단이 총림 설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으므로 팔공총림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구성원 모두는 불퇴전의 각오로 교구가 정상화되고,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님과 중도여러분에게 이번 사태로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음을 참회하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끊임 없이 팔공총림의 정상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4일

팔공총림 자주성수호 비상대책위원회